

전일동향

전일대비 7.10원 상승한 1,375.00원에 마감

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7.10원 상승한 1,37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1원 상승한 1,372.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국발 관세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주식 매도세에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상단에서 출회된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상승세를 제한하여 1,370원 초종반대를 벗어나지 않고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며, 1,375.0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30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2.93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2.00	1377.90	1371.40	1375.00	1373.80
	엔화	932.93	940.14	931.28	939.38	-
	유로화	1603.74	1613.57	1601.81	1611.5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76	-7.05	-14.97	-28.85
	결제환율(수입)	-1.42	-6.13	-13.1	-25.4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국 기술주 훈풍에...1,370원대 초종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75.00) 대비 1.20원 하락한 1,371.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어제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를 주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 바,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을 바탕으로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 새벽 6월 FOMC 의사록 발표에서 연준 위원들 간 향후 금리경로에 대한 이견이 포착되었다. 다수의 위원은 점진적 인하 또는 연내 금리동결을 주장한 반면, 위원 2명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의 인하 가능성을 표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필리핀 등 각국 정상들에게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추가 게시하였는데, 이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되어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금일 장중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기준금리는 2.5% 동결이 매우 유력하나, 금리동결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통위의 금리결정이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주식투자를 위한 환전 및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제한할 것을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9.25 ~ 1378.5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105.2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0원 ↓
	■ 美 다우지수 : 44458.3, +217.54p(+0.4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3.4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79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